

## 휘파람을 불어요

윤 성 근

초가을, 철 지난 해수욕장을 찾았다. 소용돌이가 잦아든 뒤의 정적(靜寂)을 즐길 생각이었다. 해변은 가을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로 좀 어수선하다. 한가한, 그래서 조금은 쓸쓸한 바다를 만나고 싶다는 아내의 바람이 빗나갔다. 해변을 따라 이어진 소나무 숲길로 접어든다. 숲 끝자락 어디쯤, 우리를 반기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이다. 한참 걸으니 사람이 뜸해지고 주위가 한갓지다. 숲 그늘 드리운 벤치에서 좀 쉬기로 한다. 바다를 향해, 한참을, 그냥, 멀거니 앉아 있다. 시나브로 잡다한 생각이 빠져나가고 머릿속이 맑아진다. 옆자리의 아내도 아무 말이 없다. 왜 이런 경지가 마음 편한지는 알 수 없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파람을 불고 있다. 소리는 작고 탁해졌지만, 오랜만에 불어 보는 휘파람 소리가 정겹다. 어릴 때부터 휘파람 불기를 좋아했다. 시도 때도 없이 집안에서 휘파람을 불다가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다. 휘파람 불기는 청년 시절을 거쳐 중년을 지나면서 사라진 버릇이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지난날 휘파람 불던 일들이 떠오른다.

청년 바오로를 만났다. 강원도 광산촌에 흩어져 있는 정신발달지체아를 모아 돌보는 복지 시설, '원주 천사들의 집'에서였다. 시설을 관리하는 수녀님은 그를 청년 반장이라 소개하며 작업파트너로 정해 주었다. 함께 작업장으로 가는 중이다. 앞서가던 그가 말을 걸어온다. "형, 여기서 며칠이나 있을 건데, ~요?" 반말도 존댓말도 아닌 말투가 거슬리고, 아버지뻘 되는 사람을 형이라 부르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모른 척하고 넘긴다.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라고 하니 펄쩍 뛰며 좋아한다.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는 한글을 깨우쳤지만, 문장이 좀 길어지면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돈도 천 원권과 만 원권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발달장애인이었다.

그를 만난 지 이틀째 되는 날,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건네왔다. "저는 부모가 무식해서 이 모양이 되었어요." 깜짝 놀랐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노력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론 전개가 완벽하고 세련된 단어까지 구사한다. 갑작스러운 상황변화를 이해할 수 없어 수녀님에게 물어보았다. 대답은 엉뚱했다. 정신발달 장애인 중에는 독특한 분야에 재주를 가진 이가 종종 있는데, 바오로는 남의 말 따라 하기에 특수한 재능을 가진 청년이라고 했다. 말뜻도 정확히 모른 채, 낯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생각인 것처럼 말하기를 즐긴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내가 일주일 머문다는 말에 반가워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 후에도 그는 남의 말 흉내 내기를 이어갔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놀라는 연기를 계속했다. 그는 시설 내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가 없어서였다. 내가 그의 말을 열심히 들어준 이유였다. 그리하기 일주일, 나의 말 들어주기가 그에게 진정 즐거운 시간이었다면, 소소한 일손돕기보다 훨씬 값진 봉사를 한 셈일 것이다.

휘파람을 불었다. 큰소리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했다. 환갑을 갓 넘긴 때였다. 시술(施術) 제도가 정착하기 전이었으니 꽤 신경 쓰이는 수술이었다. 수술은 잘 끝났고, 병원 부설 체육실에서 회복 운동 방법을 익히고 퇴원했다. 회복 운동은 피트니스클럽에서 이어갔다. 몸을 빨리 정상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욕심에서였다. 허리 상태가 좋아진 뒤에도 운동을 계속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매력 때문이었다. 헬스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가며 근육 만들기로 목표를 바꾸었다. 재미가 쏠쏠했고, 효과도 있었다. 조금씩 틀이 잡혀가는 몸매를 거울에 비추어 보며 욕심을 내기도 했다.

“어르신,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클럽에서 만난 배불뚝이 젊은이가 건네는 말이다. “네, 뭐 조금…” “몸이 아주 좋으시네요.” 머리는 허연데 몸매는 노인답지 않아 헛갈린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왠지 나이든 이가 주책없이 몸은 가꾸어 무엇에 쓰겠냐는 비아냥 같기도 하다. 남이야 뭐라 든 신경 쓸 일 아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정진하였으니 얻은 결과가 소중하다.

휘파람을 불었다. 아무도 모르게.

성당 ‘주보’를 정성 들여 읽는 편은 아니다. 제목을 훑어보고 가끔 관심 가는 기사를 읽는 것이 보통이다. 신앙과 관련된 기사가 도덕 교과를 닮아서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색다른 글을 만났다. 노틀담 수녀회의 마리 가르멜 수녀님의 글 <함께 살아요>였다\*.

처음 농사짓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씨앗을 뿌렸고, 또 씨 뿌린 대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중략) 이렇게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돌본 농작물을 넘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비 애벌레와 메뚜기, 참새와 비둘기, 고라니입니다 (중략). 첫해에 고구마 밭에 찾아온 고라니네 가족이 300평 되는 고구마밭의 고구마 순을 다 따먹고 갔습니다. ‘아, 경찰서에 고발 할 수도 없고, 누가 고라니를 다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중략) 김장배추는 거의 일정하게 모든 배추의 2분의 1을 잡아 먹었는데, 마치 칼로 벤 것처럼 반포기를 먹어 치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밭의 상황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고라니들이 살았던 터전에 수녀님들이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텃세하는 거여. 그리고 수녀님들은 농약도 안 뿌리니 얼마나 맛있겠어. 새들도 알고, 벌레들도 알아. 이제 더 많이 이 집으로 찾아올걸.” 약 올리는 듯한 말씀이었지만 듣고 보니 우리가 하려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어르신들은 우리가 농사지은 것보다 더 많이 당신네 밭에

서 거둔 농작물을 우리 집 앞에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배추 20포기 심어서 고라니에게 주고 150포기 얻었으니 농사를 잘 지은 셈이지요.

미소짓는 이는 따로 있다.

휘파람을 불었다. 조용히.

---

\* 조경자, 마리 가르멜 수녀님의 <함께 살이요> (수원주보 제2008호. 2022, 8, 14, 천주교 수원교구 발행)를 발췌 인용하였음.